



보도자료

2022. 01. 24. (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출범

“국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 극대화해 모두가 행복한 대전환을”

“실질적 공정 토대로 대전환 이뤄 지속성장, 따뜻한 자본주의 지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위원장 하준경 한양대 교수, 공정경제추진단장 주병기 서울대 교수, 부위원장 이용우 의원 등 주요 구성원과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를 이루는 5개 분과의 주요 구성원들도 소개됐다. ▲ 기술대전환분과 위원장으로는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권병규 변호사,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 ▲ 혁신생태계분과 위원장으로는 송재도 전남대 교수, 김인수 KAIST겸임교수,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 문성만 전북대 교수, ▲ 공정성장제도분과 위원장으로는 한재준 인하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배태준 변호사, 정홍준 서울과기대 교수, ▲ 역량강화분과 위원장으로는 이인석 서강대 교수, 홍충선 전 경희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교수, ▲ 기회확대분과 위원장으로는 주진형 강원대의대 교수, 임유진 전 아그니카 이사, 김상우 안동대 교수, 박보람 변호사가 선임됐다.

선대위 출범 이후 이재명 후보의 성장전략과 경제정책을 설계해온 이 위원회는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도성향 중견·소장 학자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연령대의 전문가 182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하준경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 시대에 “국가의 전략적 투자는 민간의 경제활동과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세계 5강, 1인당 소득 5만 달러, 모두가 행복한 도약의 대전환” 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경제추진단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합리적 경영 그리고 기업, 노동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 라고 말했다. 이용우 부위원장은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환이 시급하다” 며 “정부와 시장의 조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진국들이 앞 다퓌 산업정책을 부활시키는 대전환기에 국가전략 없이 각자도생의 시장만능주의로 퇴행한다면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며 “국가의 전략투자과 민간의 혁신투자가 쌍끌이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전환적 공정성장은 “실질적 공정을 바탕으로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 승자독식의 냉혹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지속성장 전략” 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전략 및 정책기조 설명회에서는 이재명 신경제를 가능케 하는 큰 틀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주요 과제로서 디지털 영토, 에너지 고속도로, 전략적 기술주권, 신산업창출과 유니콘 100개, 규제합리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역량강화 학습사회, 기회확대 정책 등이 소개됐다.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로는 ▲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국가’, ▲ 거시적·미시적 위험을 줄여주는 ‘보험(안전망)국가’, ▲ 급변하는 시기에 모두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량강화국가’ 가 제시됐으며,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만드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수 요건임이 강조됐다. (끝)